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발언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오늘 특별히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기관 대표님들을 모시고
자동차 산업계와 소통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자동차 업체 대표님들과 금융기관 대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최근 자동차 업체의 상황 >

우리 자동차 산업은 작년 다양한 신차 출시와 함께
SUV · 전기차 등 고부가 차량 수출 증가에 따라
부품업체의 매출이 6.6%, 영업이익은 50% 증가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 수요 급감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우리 부품기업들이 일감 감소와
유동성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부터는 수출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누적된 고정비용 부담 등으로
업체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년 다양한 신차 출시에 맞추어
금형 및 설비투자가 집중되면서,
신용등급에 애로가 발생한 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지원 요청이
은행창구에서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최대 규모인 4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타 산업과 연관효과가 매우 큰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또한 자동차는 5G,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등
4차산업혁명 혁신기술의 실험장이자 구심체로서,
자동차 산업의 토대가 무너지면,
4차산업혁명 시대도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품업체입니다.

과거 와이어링하네스 사례에서 보듯이,
한 두 개의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어도
완성차 생산 전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도

우리 부품업체를 지켜내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지난주부터 상생보증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3,800억원 규모의 전기차 기술개발 사업('20~'25)을
금년부터 시작하였으며,
1조원 규모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21~'27)도
내년부터 본격화 할 예정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우리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코로나19 등으로 당면한 유동성 위기만 극복한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여 나갈 자신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년 출시된 신차가 연초부터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노사 간에도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완성차 주요 생산국의 생산 차질에 비하여
우리 업체가 크게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월에서 4월 간

미국의 자국 내 생산은 △33% 감소하였으며,
독일은 △43%, 프랑스는 △52% 감소하였으나,

우리업체는 초기 방역조치와 정부의 개소세 감면 등으로
생산감소를 △17%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부품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P-CBO 지원 확대와 함께

정책금융 특별대출 등을 통하여
자동차 업체에 대한 대출잔액이 작년 말 대비
약 1조 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은 부품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은행창구에서 지원방안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우리 부품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장님들께서도 현장을 독려하고
또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